

수자타아카데미 10주년, 과거와 현재·미래 대화마당



◊설립 10주년을 맞는 수자타아카데미 야외수업 모습. 사진제공=JTS

나누는 마음 갖길 발원합니다

부모님도 JTS라면 믿어요

행복이란 마음 쓰기에 달렸죠

2004년 1월이 되면 JTS(이사장 범룡)에서 운영중인 수자타아카데미(교장 뿌리양카)가 10돌을 맞는

다. 10주년을 앞두고 12월 13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는 7명의 교사들이 모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색하는 열린대화마당을 열었다.

산제이-저는 어릴 때 관공객이 오면 구걸을 하러 전정각산에 가곤 했는데 학교가 생기고 공부부 시작한 후부터는 구걸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아반 공부부 출발해 삼당생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도 시작했습니다. JTS로부터 대학공부 후원을 받고 있으며, 후배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란짓-저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가정형편상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8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뒤 10학년 졸업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JTS 도움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준-10년 동안 기억 남는 일 중 하나는 학교 건물 짓는 중 폐강도가 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작년 1월 무장 강도로 인해 설거사님이 돌아가신 일입니다.

뿌리양카-학교 설립 초기에 학생들을 위해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학부모들이 저희 집에 몰려와서 외국인인 우리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유괴하는 것 아니냐며 인도선생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JTS나 학교에서 무얼 하더라도 모두 믿고 허락해주시죠.

산제이-저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여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리양카-교장으로 욕심에 욕심을 더 만드는 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려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다. 함께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장직에서 물러나면 학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지어주는 일을 지금 학생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할 겁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우리 걸 우리 신도

사찰 봉사가 약이고 기쁨

서울 달마사 실상화 보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베푸는 보시행. 하지만 '무상보시'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흑석동 달마사의 실상화 보살(69·남정입)은 사찰에서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JTS 도움으로 대학 교육을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면 못 해요. 기꺼운 마음이 '빠속부터' 우러나와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오랜 세월 사찰봉사를 통해 다져진 실상화 보살의 봉사 노하우는 시흥복지회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례행사를 돕는 등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이처럼 봉사활동만으로도 일주일이 빼듯한

실상화 보살 이지만 지난 2002년부터는 금강경 사경 등 경전공부도 시작했다. 앞으로는 자기공부에 열중하며 젊은 불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 사찰봉사의 요령 등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다.



◊달마사실상화보살이 불기를 닦고 있다.

칠순 나이에도 절집 살림 거든 사경 등 자기 공부에 열중 죽는 날까지 무상보시 펼칠 터

"나이 든 사람이 봉사라고 앞에 나서면 보기가 안 좋아요. 이제 는 더 눈에 안 띄는 일. 티 안나는 일을 찾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야지요. 요즘 사람들 법당에서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도량을 깨끗이 하는 수행은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자신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허드렛 일을 주저 없이 거드는 보살들이 늘어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실상화 보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는 발원을 잊지 않았다.

"나이든 사람이 불기를 닦으려 다닌다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줄 알더라고요. 아니면 돈 받고 해주는 줄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일. 티 안나는 일을 찾아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야지요. 요즘 사람들 법당에서 기도만 할 줄 알았지, 도량을 깨끗이 하는 수행은 모르는 거 같아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자신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허드렛 일을 주저 없이 거드는 보살들이 늘어갈 때 보람을 느낀다는 실상화 보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봉사하겠다"는 발원을 잊지 않았다.

한상희 기자



추천의 말

미명스님 달마사 주지

저는 평소에도 불자들에게 '청산이 되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구름과 같이 불자들은 청산이 되어 한 사찰에서 꾸준히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실상화 보살은

불법 실천의 귀감

요즘보기 드문 청산 같은 불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사찰의 곳곳을 마다않고 봉사로 정진하는 '달마사 지킴이'입니다. 바쁜 봉사활동 틈틈이 경전공부에도 매진해, 다른 불자들에게 불법 실천의 모범이 되는 보살입니다.

광주 한마음선원, 김장 나눔행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펼쳤다. 광주지원 김장나눔기 행사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인원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마련한 250여종의 김치 양동이는 우산복지관, 호산마을 등의 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가족에게 전달됐다.(사진)

한편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경남 지부(지부장 이기표)도 12월 17일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참한 가운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1만 2천포기의 김장을 했다. 이중 8천 포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복지관과 급식시설에, 4천포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준엽·천미희 기자

선각중 국제불교대학 1회 졸업식

(사)대한불교 선각종립 국제불교대학 졸업식이 12월 18일 총무원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종단 관계자 스님과 졸업학인, 가족 등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 종정 영담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라면 이웃에 베풀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행을 해야한다"며 "불교대학에서 배운 불법을 실천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기위해 설립된 선각종 종립 불교대학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재가불자들이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선각종 종단소속 사찰 주지와 스님 62명이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했다. 이준엽 기자

현장스님, 생명나눔 지역본부장 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 제3대 본부장 현장 스님 취임식 및 생명나눔 후원의 밤이 12월 13일 광주 지비신회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취임식에서 현장스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 조직을 통해 생명나눔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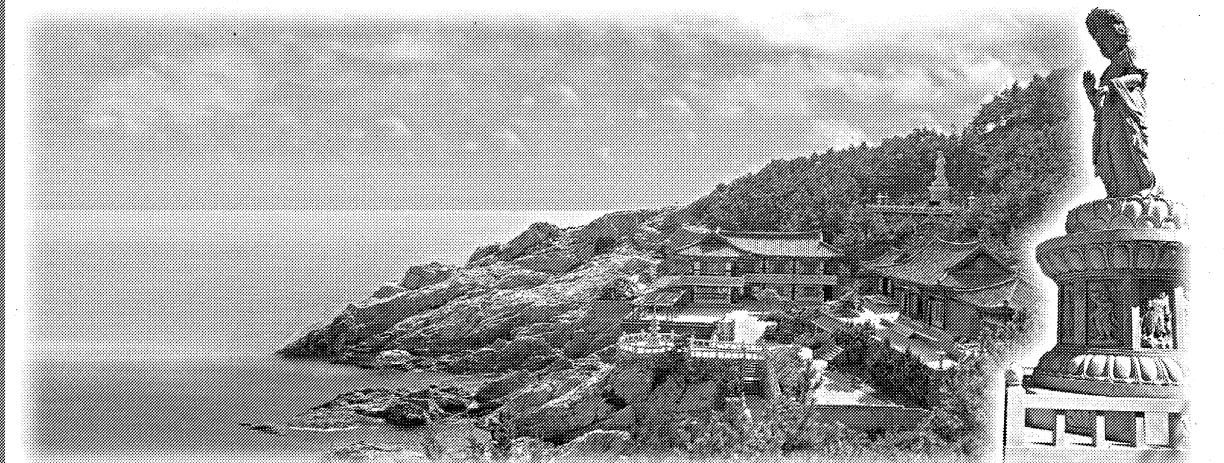
취임식에 이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3년 후원단체인 제710전투경찰부대, 송광사 사보 편집실, 광주불교방송, 광주교차로, 문민정사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전투경찰부대(부대장 강기현) 경감은 부대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 32매를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전북불교대학인의 밤

제15회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이 12월 13일 재학생과 졸업학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과 졸업학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갤러리아 웨딩타운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금년도 전법대상으로 김기만(불교학과 14회, 청년회장) 학인을 선정, 시상했다. 이준엽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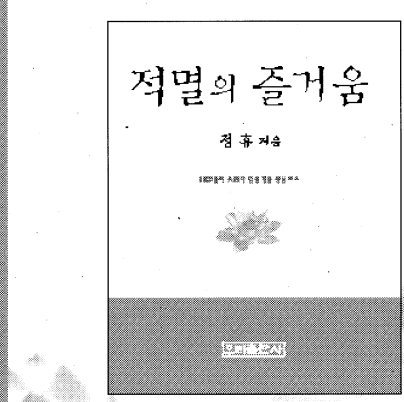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圓 寂

울 겨울 많은 선지식들이 우리 걸을 떠나셨습니다. 슬픔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형상의 스승들이 떠나신 자리에 진리의 가르침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적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선사들의 입적과 임종계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불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정 휴 지음 / 값 7,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 전화: (02)313-5047 · 5056 / 팩스 (02)393-9696